

옛 배구 도시 광주 명성 되살아나

지도자 많고 동호인 계속 늘어 광주 AI페퍼스 창단 후 인기

엘리트 체육 전성기에 광주는 배구 도시였다. 송원여상과 전자공고, 조선대 호남대로 대표되는 광주배구는 전국 배구판을 휩쓸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광주배구는 초 중등 선수 고갈로 긴 침체를 맞고 만다.

그러나 생활체육 배구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됐다. 광주가 배구명도시이던 시절 뛰던 선수들이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배구사랑에 빠진 많은 이들을 성실하게 이끌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해 체육활동이 다시 활발해 지고 있는 지금 드디어 광주에도 배구 열풍이 불

고 있다.

광주 배구열풍이 시작된 것은 아무래도 앞에서 말한 작년 AI페퍼스 프로여자배구팀 창단이 기폭제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5월 광주 제1회 페퍼스배 유소년 배구대회를 개최하여 광주 배구발전에 있어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AI페퍼스의 홈구장 페퍼스타디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에서 전국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전국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가 광주 시 배구협회와 대한장애인협회 주관 하에 10월 1~2일에 개최되었다. 광주지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여 남자부 18팀 여자부 6팀이 모여 경쟁을 하였다. 이를 지켜본 광주 배구협회 전갑수 회

장은 광주에서 장애인이던 비장애인이던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모두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생활체육 면에서도 발전을 위하여 남자프로 배구팀도 만들어 광주를 배구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회장의 바람대로 광주 시민들의 배구에 대한 좋은 활동들이 이어졌는데 학생들 또한 힘을 보탤다. 광주 북구 문흥중학교는 지난 7월 16일에 열린 2022춘계전국중고배구연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여 광주배구에 명성을 높였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가량 진행된 제15회 광주 시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대회에는 무려62개의 초,중,고 배구클럽이 참가신청을 했다.

지난2019년에 비해 26개의 팀이나 증가하였고 배구 외에도 많은 종목을 개최하였으나 담당자는 이정도 증가수치는 배구가 유일무이 하다고 말했다.

또 프로배구팀, 단체, 유소년이 아닌 일반사람들 또한 배구에 있어 열정적인 모습을 띄우고 있다. 충북에서 열린2022 생활체육축전에서 광주남자배구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생활체육 축전은 동호인들이 모여 지역별로 경쟁하는 대회이며, 광주 남자 배구팀은 대구, 부산 지역을 순서대로 꺾고 결승에 올라갔으나 경남에게 패배해 우승은 안타깝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 배구종목을 결승까지 진출하는 등 광주가 배구에 있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정준 학생기자



광주 역사와 함께 해온 고품격 종목 '승마'

전국대회 꾸준히 상위 입상

광주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있고, 광주에 홈그라운드 경기장이 있는 광주 FC 축구팀이 있다. 그러나 이런 메이저한 스포츠 종목 뿐만이 아닌, 기하 '대표한다' 라는 수식이 부끄럽지 않을 종목이 또 있다. 바로 승마다. 짙을 만한 중요 요소로 크게 3가지를 들을 수 있다.



첫째, 광주시외의 역사가 상당히 깊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깊다. 역사는 무려 일제 강점기의 아픈 시절에서 시작된다. 당시에는 '대중 스포츠', 또는 '생활 스포츠' 라고 칭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승마이라 불리던 일본인 경찰부장이 새로 부임하며 경찰 기마대를 조직, 광주의 학동 일대에 승마장도 생기며 소위 '잘 사는' 이들 위주로 승마를 즐기기 시작했다.

셋째, 앞서 언급한 역사와는 다르게, 광주승마협회와 광주광역시체육협회는 승마를 '부와 권력이 있는 자들의 호화 스포츠' 로 남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도에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였다. 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회원들의 안전을 위한 점이었다. 모래 교체부터 진입로 포장공사,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힘썼고, 초보자용 승용마를 5두 더 보유하게 되어 일반 시민들이 부담없이 시도하고 즐길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추가로 조성했다. 또한 이용 가격 역시 부담스럽지 않게 책정해놓았다.

둘째, 과거와 현재 모두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 최근 8월달만 보아도, 대통령기 대회에서 광주 소속 승마 선수들이 메달을 싹쓸이 하는 등 가히 쉽지않은 결실을 보여주었다. 작년 말 중에는 장수승마장서 개최된 'Horse in winter' 대회에서 1차 대회에 여럿 입상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경상북도승마협회장배 전국 승마대회에서도 여러 선수들이 상위 입상했다. 심지어 중등부 소속의 김재영 선수는 40class에 참가해 준우승을, 이정우 선수는 유소년부 80class에서 4위를 차지했다.

대단하다, 성적이 뛰어나다, 수준이 높다 등의 정보는 누구나 듣고 칭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종목을 체험해보지는 못하고 그저 먼발치에서 지켜만 본다면 천장에 매달린 굴비와 다를 바 없어질 것이다. /정지석 학생기자

생활체육 넘버원 자처하는 '족구'

전국체전 시범종목 채택

공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스포츠, 진입장벽 없는 대한민국 유일의 구기종목 생활 스포츠 족구. 최근 대한민국 전 동 스포츠인 족구가 전국체전 시범종목에 채택되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광주'가 있다.

족구는 공군 조종사들이 활주대에 선을 그어 놓고 하던 공놀이가 규칙이 생기고부터 '족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 이후,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고 전역자들이 모여 족구를 즐기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 족구 협회에 등록된 광주광역시 족구협회 클럽으로는 105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동호인 2017명, 심판 50명, 지도자 44명 일반 족구인 2040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 대한민국 전 동 국민 스포츠 태권도, 씨름 등과 같이 족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다 보니 등록을 하지 않고 즐기는 분들이 등록된 수의 2~3배인 광주 최소 5000명에

서 많게는 8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족구인이 훨씬 많았지만,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족구 역시 큰 타격을 받았다. 보통 족구 대회가 열린다면 적게는 5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모이게 되는데 공공 체육시설에 포함된 족구장 역시 49인까지로 제한되다 보니 침체되었고, 등산, 골프, 풋살 등 개인 상업시설의 스포츠로 많이 넘어갔다.

현재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집합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매주 경기가 열리고 있고, 동호인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족구협회 카페에서는 다양한 팀에서 동호인 모집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족구를 광주 시민 스포츠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국 일반부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며 종합 1위에 올랐다. 또한 제9회 대한체육회장배 시 도 대항 전국 족구 대회, 제25회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기, 시 도 대항 전국 족구 대회 등 다양한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무등기 야구대회는 동호인들의 축제

주말마다 수준별 리그전

광주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스포츠를 고르라 하면 야구를 떠올릴 것이다. 광주를 연구지로 하는 프로팀인 KIA TIGERS가 한국 KBO에서 우승을 제일 많이 한 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도 KIA TIGERS는 가을 야구를 해서 KBO에서 강팀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광주는 사회인 야구팀이 활발히 되어있다.



광주 사회인 야구는 개인 사이트에서 일요일그리고 13개의 팀이 서로 리그를 활성화해 일요일마다 하고 있다. 구장은 광주 북구에 용두동에 있는 용두 구장에서 한다.

광주에 야구가 정말 인기가 있는 스포츠구나라고 느낀 점은 전문 심판과 비디오 판독까지 있었다.

물론 실력 적으로 프로에 비해 떨어지지만 사회인 야구를 누구보다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바탕으로 야구를 하다 보니 광주 지역 대표신문인 광주일보에는 사회인 야구지만 기사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광주 시민들이 더 사회인 야구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한다.

무등리그 경기에서는 END와 에어패스 파죽지세, 포플레이 포비스, 그린라인이 4강을 확정했다. 광일리그 경기에서는 TOT LINE과 ㈜삼진과 정진산업스카이 하고 워리워스가 4강을 확정지었다.

광주 전담에서 두 개의 리그가 있다 한 리그는 광일 리그이고 다른 하나는 무등 리그이다. 이 두 리그에서 챔피언을 가리는 가을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것이 바로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하는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 대회이다.

4강팀의 공통점은 사회인 야구이지만 고등학생을 포함해 대학생까지 젊은 사람들이 많아 좋은 경험과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우리가 보통 사회인 동호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의 클럽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회사가 또는 그룹이 야구에 우호적이어서 팀이 점점 많아지고 활성화되어 대회를 개최를 하는 명분이 커지고 우승을 했을 때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광주 타이거스 감독님이신 임광남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사회인 야구는 서로가 부족한 걸 알고 실수를 해도 그것이 매력적이고 그것을 다 같이 극복했을 때가 진정한 매력이라고 하셨다.

올해 12회째인 이 대회는 전남도와 KIA 타이거즈도 대회 후원을 맡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야구에 함께 할 정도로 규모가 사회인 운동에 비해 비교적 큰 대회이다. 4강까지 결정을 지었다.

김재준 학생기자